

SINCE 2009

# SEOUL ROSE CLUB

## NEWSLETTER

제 2호 | 2016. 04. 05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 /CONTENTS/

## 사람과 장미 Rosarians, Rose Societies, Rose Breeders

04 로자리안 : **Mrs. VERONICA O'BRIEN** 호주 빅토리아주립 장미원 회장

06 WFRS Kelvin Trimper 회장 방한기

##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10 라파엘 클리닉 센터에 나눈 장미정원

14 민화로 그린 서울장미클럽 로고

## 장미 정원 Rose Gardens

16 영국 Albrighton David Austin Rose Garden

20 이탈리아 Monza Rose Garden

**발행일자** \_2016.04.05

**편집인** \_김옥균, 김수연, 이성현

**편집디자인** \_박혜미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

**회원접수** \_

문의 ; seoulroseclub@naver.com

황보순 로자리안 ; 010-4761-2373

입회비 ; 100,000원 (일십만원정)



## 장미 품종과 장미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22 마꼬의 장미 토막 지식 “Graham Thomas”

26 장미품종 “Mademoiselle Cecile Brunner ”

28 계절별 장미관리방법

## 장미 식재와 경관 Rose Planting & Landscape

30 장미 배식방법(2) - Companion plants

## 장미와 정원 소식 Rose & Garden News

32 WFRS Regional Convention & 14<sup>th</sup> International Heritage Roses conference 개최

32 WFRS Award Winning Gardens



/서울로즈클럽 회보 제 2 호/

## ‘호주 빅토리아주 주립 장미원의 베로니카 오브리엔 회장’



베로니카 오브리엔 VERONICA O'BRIEN

호주 빅토리아주립 장미원 회장 및 종신회원

Australian Rose Award 2012 수상자

1975년 호주의 수도 캔버라로 이사를 했죠. 그 때 저의 첫 장미 정원을 갖게 되었으며 첫 장미 전시회에 참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버른으로 옮겨 오게 되었는데 근처의 라버튼 공군기지에 있는 장미 공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장미와 좀 더 진지하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멜버른 교외에 있는 빅토리아주 주정부가 조성한 주립 장미원에서 20년 이상 불문티어로 활동해 왔습니다.

1990년 초에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 로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였으며 지난 여러 해 동안 주로 화훼장식으로 주립 장미원의 장미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저의 작품이 장미원에 크게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주립 장미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를 드리면, 주립 장미원에 대한 처음 생각은 1976년 빅토리아주 정부가 ‘정원의 도시’를 선언한 것이 개기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 설립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호주 로즈 소사이어티의 여러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86년 공식 개원을 하게 됩니다.

I planted my first rose Garden in 1975 when we moved to Canberra our Capital City and went to my first Rose Show but didn't become involved in Roses seriously until we moved to Melbourne where I planted another Rose Garden on the RAAF Base Laverton.

I became a Volunteer at the Victoria State Rose Garden at Werribee, a suburb of Melbourne. I have been a volunteer for more than 20 years.

I joined the Rose Society of Victoria in the early 90's, participated in the shows for several years mostly floral arrangements and putting up a large display from the State Rose Garden

As a brief introduction about the Victoria State Rose Garden, the original concept of a State Rose Garden arose when Victoria was declared The Garden State, in 1976. After much hard work by a few dedicated members of the National Rose Society, it became a reality in 1986 for the official opening of the Victoria State Rose Garden.





**Mrs. VERONICA O'BRIEN**

President and a Life Member of the Victoria State Rose Garden

The Winner of Australian Rose Award 2012 by the Rose Society of Victoria

. 현재 15,000평의 면적에 5,000 여 그루의 장미가 식재 되어 있으며 2003년 세계장미회연합- WFRS로부터 'Garden of Excellence Award'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외 지역에서는 첫 번째 수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우리 장미원이 순전히 봉사자들로써 운영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미원 이었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주립 장미원 운영에 2005년부터 관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회장 직을 4년 정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하고 이주민의 영어교육, 테니스, 골프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장미가 저의 열정이 되었으며 특히 국제적인 장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행이 저에게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With over 5000 roses, covering about 5 hectares, the Victoria State Rose Garden is one of the tourist gems of Victoria, and has been awarded the International Garden of Excellence by the WFRS in 2003. It was the first rose garden outside of Europe to receive the award and the only one, at that time, cared for entirely by volunteers.

I was selected to serve on the Committee in 2005 and have now been the President for nearly four years.

I have many interests which include playing Tennis and golf, teaching migrants English, listening to Music and Movies but Roses have become my Passion. Travelling to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Rose Conventions has been a very enjoyable pastime, one which I hope to continue.

#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WFRS)

## Kelvin Trimper 회장 방한’

Kelvin Trimper 회장의 한국방문은 2016년 5월 13일~16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

Kelvin Trimper 회장의 3박4일간의 한국방문은 장미를 사랑하는 로자리안들에게 커다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한국방문을 시작으로 중국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긴 일정에 한국을 포함해 시간을 허락해 준 Kelvin Trimper 회장 부부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남기고 싶다. 그리고 방문 일정 동안 몸으로 보여준 장미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얼굴 표정에서 보여준 로자리안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은 나에게 장미 앞에 서있는 자세를 배우게 할 만큼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다시 시작하고 있는 한국의 장미문화에 멋진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날을 기대해 보고 싶다.

13일 늦은 밤 인천공항에 내려 첫 일정을 시작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으로 조금은 지쳐 보이기는 했지만 어두운 창문 밖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방문 일정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때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조계사를 잠시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 걸어 창덕궁 후원으로 향했다. 후원을 돌아보며 정자에 앉아 한국정원의 여유 있는 하늘과 바람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외국인에게도 장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며, 장미에 대한 열정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서의 짧은 시간이지만 북촌과 인사동을 함께 거닐며, 휴일의 오후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다. 아침 8시. 아침고요수목원에 도착하여 서울로즈클럽 로자리안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도착 전부터 전화를 걸어와 주며 마중을 준비해준 아침고요수목원의 이병철이사의 안내로 수목원을 구석구석 안내를 받았다. 몇 번을 방문해 보았지만 역시 최고의 정원사와 함께 하는 수목원은 더 달라 보였다. 이곳에서도 장미를 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달라 보였던 회장 부부의 표정이 생각난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특별히 회장 부부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장미를 식재 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병철이사의 준비에 고마움이 더 느껴지기도 했다.

장소를 옮겨 드디어 서울로즈클럽이 중심으로 두고 있는 너싱홈 그린힐의 장미원으로 이동을 했다. 약간의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너싱홈 그린힐의 본원부터 후원 그리고 월가든과 옥상장미원까지 돌아보며 계속해서 감탄사를 이어하며, 작은 정원에도 감격해 주었다. 회장 부부에게는 비교적 큰 장미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은 출국을 앞두고 에버랜드 장미원과 희원을 방문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분들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가운데 희원을 거닐 수 있었고, 첫 테마원으로 준비한 장미원을 안내를 받으며 장미정원 가꾸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긴 시간 함께 일정을 소화해준 관계자 분들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 한다. 이제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이다. 올림픽공원의 장미원을 일정에 넣어 두었는데 이동 시간을 고려해 취소를 했지만 분당에 위치한 커피해피에 잠시 들려서 창가에 핀 장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몇 송이의 장미를 보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인사를 하며 다음에 꼭 본인의 장미원에 놀러오라는 인사말에 흔쾌히 대답을 했다. 우리 모두 다음 장미여행지로 호주를 선택하기로.....

장미정원과 로자리안이라는 주제로 지낸 3박 4일간의 짧은 시간이 아직도 큰 추억으로 자리하며, 우리들에게 이어질 장미 이야기를 꿈꾸어 본다.

글; 이성현 로자리안



아래 이야기는 함께 동행한 로자리안들의 방문기를 부탁해 남겨 놓는다.

#### 황보순 로자리안

첫째와 넷째 날을 생각하며 커피 한잔을 내리고 마시고 있자니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갔던 첫날 저에게 서울인구가 얼마나냐고 불쑥 물어서 휴대폰을 뒤지게 만든 켈빈회장님이 생각나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흘째가 되었다니, 고단한 몸은 알지 몰라도 믿기지 않습니다.

회원과 에버랜드에서도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에서 장미를 보는 순간부터 회장님의 손과 입은 더 바빠지셨고 장미에 대한 열정과 서울로즈클럽에 대한 관심을 엿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허락 지 못해서 올림픽공원을 못 가게 되자 아쉬워하는 회장부부의 표정이 마음 걸리긴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부부는 그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명함을 정리하면 저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지만 부부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차 안에서 민방위훈련에 걸렸을 때 노 부부의 표정을 보셨나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었으니까요. 5분간 멈춰선 차량이 떠나갈 때쯤, 1년에 한번쯤 있는 일이라 설명 드렸고 넷이서 박장대소하였습니다. 30분의 여유가 있어 커피 해피에 방문했을 때 한사코 설탕을 거절하시는 모습에서 암과 싸웠던 회장님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이유로 맵고 짠 것을 피하셨구나.

2021년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 컨퍼런스에 오라며 연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느꼈습니다. 첫날의 머쓱함은 이제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그리고 짧다면 짧지만 도전과 희망이 보이는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글; 황보순 로자리안





유병국 로자리안

세계장미협회장부부와 서울로즈클럽 회원과의 아침고요수목원 방문

2016년5월16일(일)새벽5시에 기상, 전날 세계장미협회장 부부를 모시고 서울 투어를 하루 종일 해서 그랬는지 몸이 다소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아주 오랜만에 아침고요수목원을 방문한다는 설레는 맘이 더 앞서서 서둘러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 1시간30분 소요예상, 7:50분까지 도착해야 할 것 같아 정신 없이 달린 결과 다행히 시간 내 도착하여 그 분들과의 수목원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목원의 산증인이신 이병철 소장님의 수목원에 대한 수종과 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수목원이 만들어진 역사적 내용 등을 들으며, 15년 정도 전에 수목원에 왔을 때와는 아주 다른 기분의 기행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장미협회장부부의 연이은 감동의 목소리에 나의 수목원은 아니지만, 이런 수목원을 세계의 유명인사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뭇 긴장되면서도 우쭐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이 수목원이 있는 이유와 그 회장이 회장이 된 이유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열정일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열정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그 열정, 그 열정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2시간30분 정도의 오전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 수목원은 역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수목원을 그 회장 내외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마음과 함께, 같이 참석했던 서울로즈클럽 회원 분들과 계속해서 같이 시간을 하지 못하고 귀가해야 하는 아쉬움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유병국 로자리안





김옥균 로자리안

WFRS,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를 우리 말로 어떻게 호칭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추후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세계장미회연합’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Rose Society’는 장미학회나 장미산업협회가 아닌 순수한 로자리안이 주축이 되는 모임이므로 ‘장미회’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WFRS는 ‘세계장미회연합’으로 호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WFRS는 아마추어 장미애호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세계 주요 장미원들이 associate member로 가입되어 있으며 산하 Breeder’s Club에는 세계 주요 장미 육종회사나 육종가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미 품종의 평가, 우수 정원의 시상, 우수 육종가 선정 등 산업과 관련된 활동과 야생장미와 고전 품종의 보존, 장미문화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많은 연구와 data base 구축 및 존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의 범위와 영역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세계장미연합에는 현재 39개국의 국가장미회(National Rose Society)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Kelvin Trimper 회장은 이러한 제반 활동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몹시 분주한 분입니다. 그가 한국의 로자리안의 활동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회원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장미 문화를 경험하고 장미 정원을 직접 체험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일로 판단됩니다.

Kelvin 회장 부부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매우 인상 깊게 생각하고 서울로즈클럽 회원들의 환대와 따뜻한 우정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이번 회장의 방문은 우리에게 장미의 재배와 장미문화의 확산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장미를 접하고 국제 로자리안들의 활동을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라파엘클리닉센터에 나눈 장미정원 Raphael Clinic's Rose Garden

이야기를 열며 푸르네 ‘꿈꾸는 정원’에 대해 먼저 소개하자면 매년 주변 소외된 이웃에 정원을 기부하며 정원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꿈꾸는 정원을 통한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매년 다양한 곳에 기부정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라파엘 클리닉 센터로 마음을 모으며 특별히 치유의 장미정원을 기부하고자 했다.

메인 테마가 장미인 만큼 푸르네 가든 볼런티어와 함께 서울로즈클럽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즐겁게 이끌고 나갔다.

좋은 인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장미정원을 꿈꾸며 많은 도움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갔던 순간순간의 즐거웠던 이야기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 장미정원이 피어난 하루

정원을 만들기로한 D-DAY, 푸르네 가든볼런티어와 서울로즈클럽 회원, 엄마와 함께 온 예쁜 딸까지 모두가 좋은 에너지로 모여 함께 정원을 계획하고 식물을 심고 따뜻한 점심과 맛있는 와인이 있는 멋진 하루를 보냈다.

관목형으로 화단을 화려하게 채워줄 장미와 함께 자연스러움을 더해준 초화류들은 사실 작년 겨울에 1차 식재를 진행하며 식물을 땅에 묻어 월동했었는데, 기특하게도 식물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올리며 봄날을 기다려주고 있었다. 마침 부활절이란 날과 맞춘듯이 다시 예쁘게 장미정원에 부활해주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 후의 좋은 소식까지 덧붙이자면, 봄이 오며 눈길을 끄는 장미정원의 모습에 동네에서도 오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장미정원을 보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집앞에 꽃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라파엘클리닉으로부터 전해들었다.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 담겨질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정원이다.







## 라파엘클리닉 센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로 과거 우리가 해외에서 어려운 이주민의 삶을 살았듯, 그들도 힘들지만 필요한 업종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받지만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으로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전 재산이 기부된 곳이다. 라파엘 클리닉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치유의 장'이자 '만남의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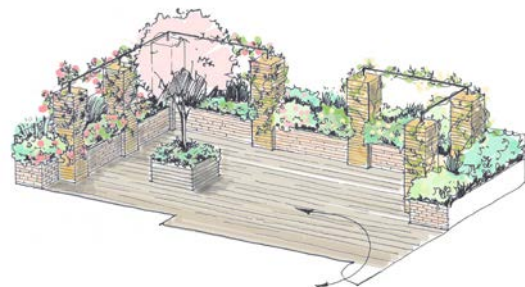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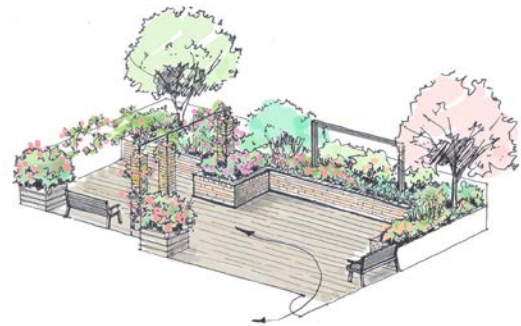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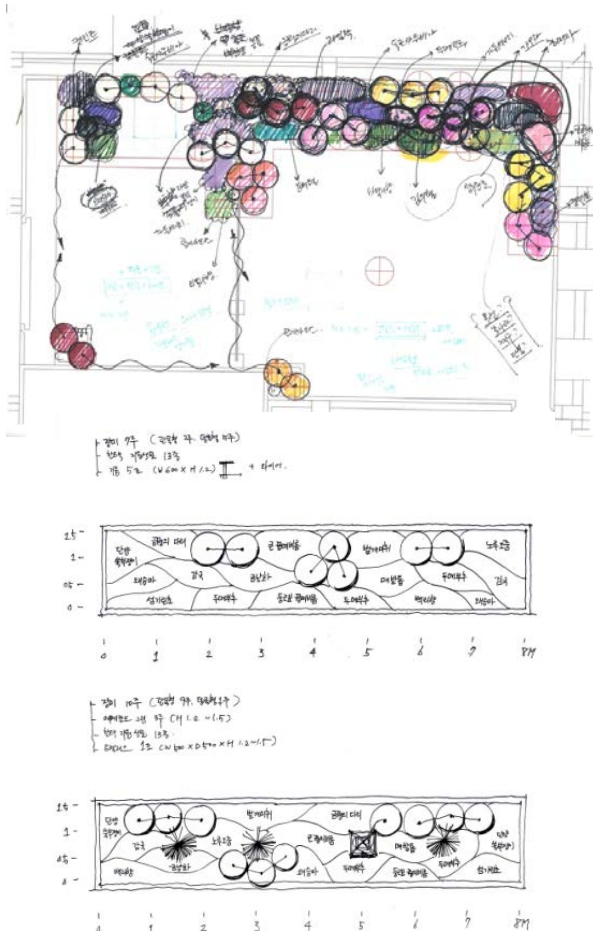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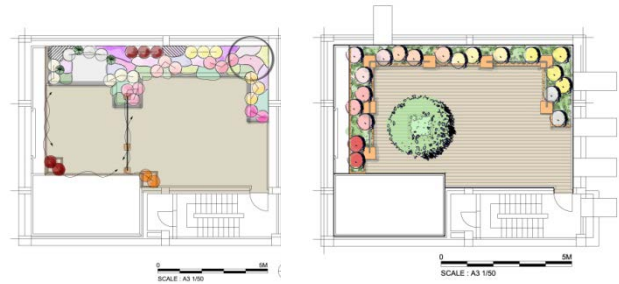
## '장미정원' 이었던 이유

마리아를 상징하는 장미. 병과 죽음에 대한 성모님의 위로와 치유. 장미는 사랑과 순결의 상징을 가진 성모님의 꽃이다.

유럽의 중세 '마리아의 정원'으로 알려진 로자리움(Rosarium)은 병과 죽음에 대한 성모님의 위로와 치유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장미와 약초로 가꾸어진 정원이었다고 한다.

늦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지속적 개화하는 장미는 치유의 천사 라파엘과 영원한 사랑 성모님의 상징성을 담고 경관적 아름다움까지 더하는 특별한 식물이다.

## 더 많은 이야기



### 초기계획 : 계획부터 공간 만나기까지

초기계획은 옥상에서 만날 수 있는 치유 장미정원이었다. 라파엘 클리닉을 내방한 모두가 옥상의 치유정원을 만나고, 그 안에서 장미가 전해주는 아름다운 향기와 경관에 마음까지 치유 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원을 계획했다.

정원은 한 편에 기도하는 조용한 공간이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며 메인 테마인 장미가 정원을 아름답게 감쌀 수 있도록 심플한 구조물을 고려한 두 가지 안으로 준비했었으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던 중 건물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옥상정원을 만드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했다.

그 대안이 바로 라파엘 클리닉센터 입구에 마련된 주차공간에 위치한 화단이였다. 공간의 변화는 크고 쾌적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라파엘 클리닉을 찾고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에서 맞이해줄 수 있는 정원이자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씨앗 같은 정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을 수 있었다.





## 정원을 위해 모인 다양한 손

이번 장미정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손들이 모였다. 함께 정원을 만들어준 푸르네 가든 볼런티어분들과 대부분의 식물을 지원해준 한택식물원이다. 한택식물원은 매년 푸르네 꿈꾸는 정원에 함께 해주어 참 고맙고 든든한 손이다. 메인 테마인 중요한 장미는 서울로즈클럽에서 지원했다. 무언가를 위해 서울로즈클럽의 이름으로 장미를 기부한 의미있는 순간을 함께해서 기쁘고 어썰폰 글숨씨로 이 마음을 소식지에 담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리고 기존 화단 앞에 장미화단을 만들어준 푸르네 식구인 변성하우징 김용석 대목님, 홍보에 힘써준 한국조경신문, 소셜크라우드펀딩(다음 희망해)으로도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졌다.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김옥균 로자리안과 일본 장미정원사 Makoto Hiraoka (Mr.)까지 장미정원을 위해 모였던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장미정원이 변화시킬 누군가의 일상을 기대하며..

글; 박혜미 로자리안





## 민화로 그린 장미 로고

서울 로즈 클럽 회보를 창간하면서 로즈 클럽을 대표하는 로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김수연 로자리안이 디자인한 로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장미 로고는 자체 제작된 앞치마에 찍히고, 스카프에도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앞으로 서울 로즈 클럽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민화 기법으로 로고를 그려 보았습니다.

먼저 화선지에 본을 뜨고, 밑 색칠을 한 다음, 채색을 한 후 바림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선을 뜨고 봉채 칠을 했습니다. 반짝반짝 광채가 납니다.

서울 로즈 클럽의 앞날에도 빛이 나길 바랍니다.

글, 그림 ; 이은주 로자리안



## 고전 장미와 현대 장미의 결합으로 Modern Shrub Roses의 새 지평을 연 장미 정원



사계절 지속적으로 꽃을 피우는 장미 Hybrid Tea ‘라 프랑스’ (La France)가 처음 육종된 시점인 1867년을 현대 장미의 시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줄 곳 현대 장미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름에만 꽃을 피우던 유럽 고유의 장미인 고전 장미(Old Rose)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전 장미는 사계절 동안 지속적 개화를 하지 못하는 점과 색상의 다양성이 적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양한 향기, 관목형 수형, 그리고 꽃의 형태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전 장미를 현대 장미와의 결합을 시도하던 David Austin는 1969년 최초로 이런 현대장미의 지속적 개화성과 고전 장미의 관목성 특성을 가진 장미인 Wife of Bath의 육종에 성공함으로써 Modern Shrub Roses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Austin은 그 해 David Austin Roses를 설립하고 그의 아내 Pat Austin과 함께 영국 올브라이튼(Albrighton)에 그들의 농장을 조성합니다. 이곳에 현재 David Austin Rose Garden이 있습니다.

Albrighton 은 영국 슈롭셔 (Shropshire) 지방의 울버햄턴 (Wolverhampton)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영국의 중부 지방(Midland)인 여기는 버밍햄에서 북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슈롭셔는 영국 중세 튜더(Tudor) 시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근의 워릭(Warwickshire), 북쪽의 더비(Derbyshire) 모두 자연 경관이 빼어난 지역들입니다.





# Albrighton의 'David Austin Rose Garden'

올브라이튼의 장미 정원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방문했던 다른 어떤 장미 정원보다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로즈 가든의 효시라고 알려진 영국 조경가 햄프리 랩튼(Humphrey Repton)이 설계한 Ashridge 가든의 로자리움(Rosarium),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정원사이자 원예가인 그래함 토마스(Graham Thomas)가 디자인한 모티스폰트 수도원(Mottisfont Abbey)이 연상되었습니다. 특히 Albrighton의 Lions Garden은 모티스폰트 가든의 담벽 정원(Walled Gardens)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올브라이튼 정원(The Gardens at Albrighton)은 네 가지 다른 양식의 장미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는 8,000 평방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Long Garden, Victorian Garden, Renaissance Garden, Lion Garden의 4개 정원입니다.

## The Long Garden

롱 가든은 올브라이튼 정원에 길게 쪽 뻗어 있으며, 전체 정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정원일 뿐만 아니라 정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롱 가든 옆으로 나란히 세 개의 정원 빅토리아 정원, 르네상스 정원, 라이온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롱 가든은 길이 85m, 넓이 25m의 규모라고 합니다. 세 정원 사이에는 이중 장미 가장자리 화단(double rose border)이 조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긴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중앙 산책로의 끝 부분에는 소녀 조각상을 두어 눈길을 멈추게 합니다.

글 ; 김옥균 로자리안







# Albrighton

## The Victorian Garden

롱 가든의 왼쪽 끝 단, 올브라이튼 정원의 제일 안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 정원의 구조는 세 개의 동심원의 가장자리 화단을 만들고 바깥 쪽이 크고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적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램튼의 로자리움에서 보는 방사형 정원과 같은 형식으로 각각의 원형의 가장자리 화단은 여섯 칸으로 나누어 작은 통로를 내어 마치 수레바퀴의 살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정원의 바깥 쪽에서 롱 가든 방향으로 아치를 세우고 덩굴장미를 올렸습니다. 이 양식도 햄프리 램튼의 로자리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 The Renaissance Garden

르네상스 가든은 올프라이튼 정원의 중심에 해당합니다. 길게 늘어선 롱 가든 옆에 붙어 조성된 세 개의 정원 중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는 라이온 가든이 안쪽으로는 빅토리아 가든이 놓여 있습니다. 정원에 들어서면 1.5m 넓이의수로 같은 연못이 길게 뻗어 있으며, 가장자리는 석재와 장미를 어우러지게 하여 마치 돌 위에서 장미가 튀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장미가 수로의 물 위에 비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 The Lion Garden

라이온 가든은 다양한 종류의 장미와 companion 식물을 자연스럽고 다양한 방식으로 植栽하여 cottage garden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Wall의 느낌과 하부 植栽의 구성은 모티스폰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lbrighton David Austin Roses에는 부속된 garden shop, 두 개의 식당, gift shop이 있었습니다. 특히 David Austin Roses는 merchandising 사업에도 깊게 참여하여 장미 관련 상품, 화장품, 생활 도자기, stationary, 서적, 정원용품 등 다양한 사업의 영역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David Austin Rose Garden

이 지극히 아름다운 장미 정원은 화려함을 넘어서 황홀한 경지의 정원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방문을 위해 인근 5Km 정도의 떨어진 쉬프날(Shifnal)이라는 마을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 차례 정원을 방문했지만 그곳을 떠나 올 땐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미학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다양하면서도 고상한 화려함으로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David Austin은 그의 장미가 English Rose로 불리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David Austin Roses가 반세기 정도 밖에 안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미 육종회사이지만, 그가 영국 장미의 정체성 확립을 염원하고 있으며 오스틴 장미의 질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lbrighton David Austin Rose Garden은 로즈 가든의 효시로 인식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조경가 햄프리 랩튼의 로자리움 원형 재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고전 장미의 수집과 보존에 있어서의 공헌, 그리고 오늘날의 관목형 현대 장미인 오스틴 장미의 성공과정에서 그의 조력자였던 그래함 토마스의 정원 디자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글 ; 김옥균 로자리안







몬자 로즈 가든 정원사 Enzo Arciuolio와 함께

## Niso Fumagalli Rose Garden - Villa Reale, Monza Italy

Opening in May/June : Tuesdays - Fridays  
08.00 – 12.00 and 14.00 – 18.00.  
Saturdays and Sundays: 09.00 – 13.00 and  
15.00 – 19.00 (closed 21st May and 2nd June).  
Free entry

## 이탈리아의 장미정원에 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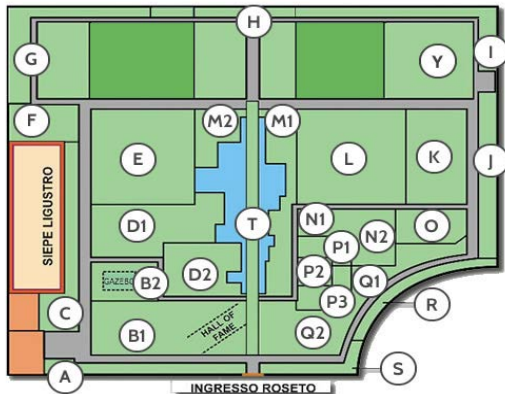
여름의 호화로운 장미를 보고 싶다면, 정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어쩌면 장미꽃이 피기 전인 이른 봄일지 모릅니다. 3월의 이른 어느 봄날 저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로즈가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 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도착한 Monza. 고요하면서도 웬지 모를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도시 풍경에 장미정원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마음은 한껏 들떴습니다.

1964년 이탈리아 로즈 협회장인 Niso Fumagalli에 의해 설립된 몬자 로즈 가든은 현대 장미 뿐만 아니라 고대 품종의 장미가 모두 있는 가장 인기있는 로즈가든 중 하나입니다. 몬자 로즈가든에는 800여종 이상의 장미가 관리되고 있으며, 5월에는 ‘최고의 장미 신품종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시기가 이른 봄이어서 장미꽃은 볼 수 없었지만, 장미를 관리하는 정원사의 바쁜 일상을 살펴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b>ABBAYE DE CLUNY ®</b> Sigla: MEBringay; Carla Crosa di Vergagni, Romantic Serenade, Fiona Stanley™ Categoria: HT Anno: 1993 Di: Meiland Posizione: L (n° 12, le 2 piante a sinistra) Descrizione: Fiore grande (10 cm.), pieno (25-31 petali), a coppa, singolo, a volte a gruppi di 2-3, colore giallo albicocca, più chiaro ai bordi, foglie grandi, verde medio, semi-opache, cespuglio eretto e ramificato, 90-120, fioritura abbondante, rifioritura continua, leggero profumo speziato, poche spine: ideale per aiuole in gruppi e da fiore reciso: resistente al freddo e alle malattie.
	<b>ACADEMIE D'ORLEANS</b> Sigla: EVERlor 07-4553-2 Categoria: HT Anno: 2014 Di: Eve & Rateau Posizione: H (n° 14) Descrizione: Fiore grande (8 cm.), semi-doppio (15-20 pet.), a coppa, da 1 a 3 per gambo, colore da giallo a bianco, foglie medie, scure, lucide, ovali, fitte, semi-eretto, 80-100, fioritura abbondante, di lunga durata, rifioritura intermittente in media quantità, profumata, mediamente spinosa, indicata per aiuole sia in gruppi che isolata, da fiore reciso: ottima resistenza alle malattie.
	<b>ACCADEMIA ®</b> Sigla: BARacc- 5971 Categoria: HT Anno: 2006 Di: Barri Enrico Posizione: P3 (n° 15) Premi: 3° premio cat. HT, Corona del profumo, La più bella rosa italiana Descrizione: Fiore grande (10 cm.), pieno (> 30 pet.), a coppa, da 1 a 3 per gambo, colore viola porpora, leggermente orlato di bianco, rovescio più chiaro, foglie grandi, verde medio, lanceolate, abbastanza dense, eretto, 70-90, fioritura abbondante, di lunghissima durata, profumo intenso con note rosa, mela, calvados e legno di cedro, ideale per aiuole in gruppi e da fiore reciso, ottima resistenza alle malattie.

홈 페이지 (<http://www.airosa.it>) 에 방문 해 보 면  
영역별로 식재되어 있는 장미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어서, 장미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장미정원을 만들기 위해 잔디 위에  
표식을 하는 작업, 겨우내 자란 풀의 경계화 작업,  
장미주변에 어울릴 초화류 보더를 만드는 작업  
등... 부산한 정원사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심하  
사진을 찍는데 제가 멀리 한국에서 이탈리아의  
장미정원을 보러왔다고 하니 하던 일을 멈추고  
몬자로즈가든을 설명해주는 정원사의 표정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몬자로즈가든에 심어져있는 장미에는 모두  
고유번호가 붙은 라벨링이 되어 각 구역에  
도식화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미의 품종 뿐만 아니라 기증자, 식재일 등의  
정보가 있어서 그 누구라도 장미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식생에 대해 자세히 관찰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런  
세심한 관리팁들이 우리의 정원에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김정하 로자리안



## 마코의 장미 토막 지식

今号から、バラの育て方や、ストーリー、いろいろなことに関するコラムを書か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平岡 誠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現在、私は大阪府泉南市にある、イギリスの育種家、デビッド・オースチン・ローズ社のガーデンにて、テクニカル・スペシャリストの肩書でガーデンのデザインや、栽培方法の指導などを行っております。バラは知れば知るほど、奥深い植物です。原種のバラのバリエーションの多さや、育種家ごとのストーリー、一般的には一切脚光を浴びずに、歴史の陰で、ひっそりと地道な育種を行い続けた人々などなど、挙げだせば枚挙にいとまがありません。その中で、私の最初のコラムに選ば

ていただいた品種、兼、人物は「グラハム・トーマス」です。

バラを少しでも知り始めた方はこの人物の名前を知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フルネームは「グラハム・ステュアート・トーマス」(Graham Stuart Thomas)で、英国の園芸家、また、バラの歴史にも精通する、オールドローズの研究家でもあります。



### 그래함 토마스 Graham Thomas

이번 호부터 장미의 재배방법과, 장미 이야기 등 장미에 대해 다양한 칼럼을 쓰게 된 히라오카 마코입니다. 현재 오오사카부 센난시에 있는 영국 육종가인 데이비드 오스틴 로즈 회사의 정원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가든 디자인과 재배방법을 교육 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알면 알수록 심오한 식물입니다. 원종 장미의 풍부한 다양성이나 육종가들의 이야기, 일반적으로는 전혀 각광 받지 못하고 역사의 한편에서 조용히 꾸준한 육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등등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제 칼럼의 처음을 장식할 품종 및 인물은 그래함 토마스입니다.

장미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분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풀 네임은 그래함 스텐워드 토마스 (Graham Stuart Thomas)로, 영국의 원예가, 장미 역사에도 정통한 올드 로즈의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오스틴이 장미 육종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거의 전세계가 하이브리드티라고 불리는 대륜계 장미의 육종에 열중해 있는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 장미를 만들어 낼까? 장미 육종가의 목표는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적인 올드로즈의 매력에 빠진 데이비드 오스틴이 그 매력을 신품종에도 도입하려고 육종에 도전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 Tips on Rose Heritage & Care



그래함 토마스 Graham Thomas

## グラハム・トーマス Graham Thomas

デビッド・オースチンがバラの育種を始めたころは、ほぼ全世界が、ハイブリッド・ティー(Hybrid Tea)と呼ばれる大輪系のバラの育種に夢中になっている時代でした、いかに大きな、豪華な花を作り出すか、バラの育種家の目標はただただその一点に絞られてい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そんな中、歴史的なオールドローズの魅力に取り憑かれたデビッド・オースチンがその魅力を新しい品種にも表現しようと育種に挑戦し始めたのですが、もちろん最初は人々からは見向きもされません。そんな中、オースチン氏を励ましつづけ、育種を応援し続けたのが、他でもないグラハム・トーマス氏でした。両者は数かぎりないディスカッションを重ね続け、80年代の初頭に、ついに転機が訪れます、チェルシー・フラワーショーで発表された数品種が瞬く間に世界中の話題をさらったのですが、その中にこの品種「グラハム・トーマス」が含まれていたの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実際にナーサリーでトーマス氏本人に選ばれたこのバラは、発表から30年以上たつ今でも、人々の心をつかんで離しません。世界バラ会連合(WFRS)のバラ殿堂入り(Rose Hall of Fame)品種にも2008年に選ばれ、いかに、この品種が世界中の人々から愛されるようになったかを物語っています。

短く冬季剪定すれば、少し高めのシュラブ・ローズとして咲かせることができ、比較的暖かい気候のところでは、つるバラとして、豪華な仕立て方ができる品種です。このように、いろいろなバリエーションで楽しめるのが、シュラブ・ローズの特徴で、すべての品種で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その立体的なバリエーションの作り方はそれまでハイブリッド・ティー一辺倒だった、各地のバラ園の有体に風穴を開け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また、その自由な育て方はほかならぬ、グラハム・トーマス氏によって、歴史的なオールドローズから発掘された、バラを使った園芸家の自由な表現方法と言い換え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われます。まさに日本のことわざの「温故知新」(古きを訪ねて新しきを知る)を地でいった、素晴らしい一例であると思われます。

このように、この今の瞬間にも咲いているそれぞれのバラにはそれぞれのストーリーがあり、その一つ一つをその季節の管理方法なども交えながら、この連続コラムではご紹介していこうかと思っています。お付き合いの程、よろしく願いいたします。



## 그래함 토마스 Graham Thoma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틴 씨를 격려하며 육종하기를 계속해서 응원한 사람이 바로 그래함 토마스였습니다. 두 사람을 수많은 토론을 반복하여, 드디어 80년대 초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첼시플라워 쇼에서 발표된 여러 품종이 순식간에 전 세계의 화제를 휩쓸었던 것인데, 그 중 이 품종 "그래함 토머스"가 포함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 육묘장에서 토머스 본인이 선발한 이 장미는 발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 장미 협회(WFRS)의 장미의 전당(Rose Hall of Fame) 입성 품종으로도 2008년에 선정되어 얼마나 이 품종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겨울 전정을 하면, 조금 키가 큰 관목 장미로 키울 수 있고, 비교적 따뜻한 기후인 곳에서는 덩굴 장미로 화려한 장식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관목 장미의 특징으로, 모든 품종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양한 입체적 표현 방식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티뿐이었던 각지의 장미원에 엄청난 돌풍을 불고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자유로운 재배방법뿐만 아니라, 그래함 토마스에 의해 역사적인 올드 로즈에서 발굴된 장미를 사용한 원예가의 자유로운 표현 방법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옛 속담인 온고이지신- 溫故而知新(옛 것을 제대로 알고 새로운 것을 안다)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순간에 피어있는 다양한 장미에는 각각의 숨은 이야기가 있고, 그 하나하나를 그 계절의 관리 방법 등과 함께 소개해가며 이 칼럼을 이어가려 고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 Makoto Hiraoka

일본 오사카 출신

San Jose State University 졸업

“Technical Specialist” David Austin Roses Japan

David Austin Osaka Garden, Tokachi Hills Hokkaido Rose Garden, Nanatsudo Park Rose Garden, Greenhill Rose Garden 등

장미 식재 디자인 및 maintenance 자문역

저서 Encyclopedia of Roses (NHK publishing, Co-author)



## 장미품종 : Mademoiselle Cécile Brunner (Pol) 1881 Pernet-Ducher

西尾 讓司

Helpmefind.com 등을 보면, 이 장미를 콘테스트에 출품할 때의 품종 명으로는

“Mademoiselle Cecile Brunner”가 권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의 별명이 있고, 일본 책 등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Cecile Brunner”로도 실려있고.

Modern Roses 12에서는 Mademoiselle 의 생략인 Mlle 를 이용해 “Mlle Cecile Brunner”라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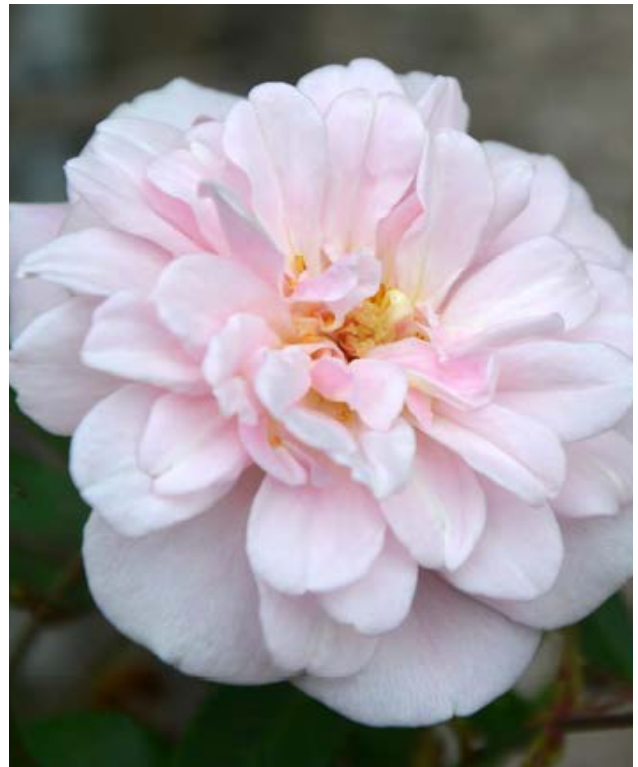
작품의 출전은 프랑스의 Marie Ducher에 의해 1880년 이전 작품으로 나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녀는 여러 경우에 Veuve (생략해서 Vve) Ducher로 불려워 집니다. Veuve은 미망인의 의미로, Ducher의 창업자 Claude Ducher의 사망 후, 아내인 그녀가 가업을 이었습니다.

Marie는 황색 하이브리드(HT)의 기원을 만든 페루네시어나 계를 확립한 Joseph Pernet-Ducher의 부인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그의 어머니입니다. 발매는 Joseph Pernet-Ducher가 1881년에 했기 때문에 판매자(introducer)로서 Pernet-Ducher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제에서는 작품을 출품한 년도가 아니고 발매년도와 판매자로서 기재했기 때문에 작품을 출품한 년도와 작품을 출품한 사람으로서 적으면 <1881 Vve Ducher 이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단, 교배친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설이 있는 것 같은데, [Polyantha alba plena] × [Madame de Tartas]라는 설이 많이 보여지지만, 종자친쪽이 무명의 포리안타이거나, 덩굴성의 포리안타 또는 Poly-pom(다화성으로 피는 계라고 할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분친은 같은 티로즈계의[Souvenir d'un Ami]로 하는 설도 있습니다.



로잔나의 장미 재배집안, Ulrich Brunner (왜그런지 인명에는 움라우트가 붙은 기재를 본 적이 없음)의 딸에게 바쳐졌다고 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로잔나는 스위스 중에서 프랑스어권이지만, Ulrich 이라고 하는 이름은 독일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성씨의 Brunner 는 부른너로 발음될 것인가? 그런데, Helpmefind.com 이나 Modern Roses 12 에서 일부러 움라우트를 붙여서 Brünner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뷰룬나가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작품을 출품한 사람의 두세가 프랑스인으로서 Cecile가 프랑스명으로서도, 프랑스어권에서 Brunner 이라고 쓰면 부릉네로 발음될 것이라는 설은 그 이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실·부룬나'라고 외래어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세계 장미회연합의 전당입성한 올드 로즈의 필두에 올라 있습니다. 옛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랑받고 있는 장미라고 해도 좋다는 기준으로 뽑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포리안타계이기 때문에 모던 로즈가 아닌가? (올드 로즈의 전당에 들어가기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궁한다면, 처음부터 프랑스에서는 올드와 모던의 구분이 1925년도에 있던 것이라고 되받아 치면 좋지 않을까요?

향기는 좋지만, Helpmefind.com 을 비롯한 「병에 강하다」 라고 하는 기술은 적어도 관동(關東)지구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포리안타와 같은 검은 점 병에 걸리기 쉬워서 여름 철은 잎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그래도 가을이 되면 건강을 되찾은 것 같이, 꽃이 가득히 올라 옵니다.

더 기온이 떨어지면 중심부의 핑크가 짙어져 오프라들므로 아름다움이 더 늘어나는 장미입니다.

흑점의 나뭇 잎이 비치지 않도록 사진촬영을 하려고 할 경우는, 꽃받침이 되어 있는 모양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상태의 꽃만 한송이를 노려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의 사이즈는 조금 큰 미니어처 로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포리안타 장미의 평균적인 크기이지만, 다화성으로 되풀이해서 피는 성질이 뛰어납니다. 줄기 전체에 걸쳐 가시가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사족으로, 일본어로는 토케라고 하는 말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어에는 thorn 과 prickly 이 있어 (이외에는 spine 이 있다), 프랑스어에는 epine 과 aiguillon 이 있습니다.

「장미에 관해서는 epine과는 명백한 aiguillon 라고 말하는 데, 그 차이는 중요해서, epine 은 작은 가지의 목질부에 유래하는 혹같이 특출어난 것이고 aiguillon 은 장미의 경우 가지지만, 표피부에 유래하는 혹같이 특출어난 것이다.」 이라고 Francois Joyaux 씨의 Nouvelle Encyclopedie des Roses anciennes (Ulmer, 2005) 에 프랑스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일상어로서 먼저 말한 3개의 언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식물학용어로서는 prickly 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본 품종 혹은[Zephiline Drouhin]등의 가시가 적은 품종을 thornless rose 이라고 부르는 것은 식물학적으로 엄밀하게는 틀린 것입니다. Modern Roses 12에서는[Mlle Cecile Brunner] 의 해설로 제대로 prickles very few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본 : Old Rose & Climber Club 회보  
글쓴이 : 유병국 로자리안



## 계절별 장미 관리 방법

장미는 일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장미가 완전히 성장해서 여름 중순에 꽃을 피우게 되었을 때, 당신이 장미의 상태를 최상으로 지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장미에게 그 만큼의 충분한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장미를 겨우내 화단에 두었다면 전정할 때까지 해야 할 더 이상의 일은 없습니다.

이 일정표 또는 체크리스트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하여야 하는 지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지만 그 알맞은 시기의 선택은 날씨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1. 이른 봄부터 중순까지

- 가을에 심겨진 장미가 땅에 확실히 뿌리를 잘 내렸는지 점검하십시오. 겨우내 서리와 바람으로 인해 느슨하여 졌다면 뒤축을 사용해서 고정시켜 주십시오.
- 이 시기는 새로운, 나뭇 상태의 장미를 심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 아직도 관심을 두지 못했던 현대 덩굴장미가 있다면 전정하여 주세요



□ 모든 장미에 과립형의 장미용 비료를 식물 주위 토양에 뿌리면 서 조심스럽게 토피와 잘 섞어 주세요.

□ 유기질 비료나 정원에서 만든 퇴비로 장미 밑동의 땅을 덮어 주세요. 이 시기는 또한 토양수분 방지, 잡초억제를 위해 바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크로 멀칭하는 시기입니다.

□ 키 큰 관목장미를 위한 지지대는 제자리에 놓고 덩굴성 장미를 위한 지지대는 계절이 바뀌면서 성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2. 늦 봄

□ 해충과 질병의 초기 증상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감염의 조짐이 있는 잎은 모두 식물에서 떼어 내시고 필요하다면 적합한 해충제를 뿌려주세요.

□ 다른 불필요한 식물과 경쟁이 없도록 장미 주위의 잡초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 주변 관목과 다년생 식물의 어린 줄기와 가지가 장미와 서로 교차하는 하는 경우 자르거나 뒤로 묶어서, 장미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여 주십시오.

□ 화분에 장미를 키울 경우 늦 가을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주세요.

## 3. 이른 여름

□ 날씨가 건조해지면, 장미의 잎과 꽃이 탕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십시오.

□ 꽃의 무게가 늘어나는 관목 장미, 덩굴성 장미, 램블러 장미는 필요에 따라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 새로운 꽃의 개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든 꽃은 바로 제거하여 주십시오.

□ 특히 검은 무늬(흑반병) 그리고 흰곰팡이(병) 같은 진균성 질병의 증상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살진균제(곰팡이 방지약)를 정기적으로 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 이 시기는 화분에 심겨진 장미를 사서 정원 빈 곳에 식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화분 장미는 싹이나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색의 배색을 맞춰서 화단 안에 위치시키기가 쉽습니다.

## 4. 한 여름

□ 시든 꽃은 따내어 주세요,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처음으로 핀 꽃들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시들어 버린 꽃 무더기의 제거를 통해서 관목 장미와 현대 덩굴 장미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때 입니다.

□ 다시 한 번 과립형 비료로 도포해 주십시오.

□ 땅이 건조하면 충분히 물을 주십시오.

□ 진균병을 막기 위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살균제를 뿌려주세요.

□ 녹병의 징후를 찾아서 감염된 잎은 모두 따 주세요.

## 5. 늦여름

□ 시든 꽃은 지속적으로 따내어 주세요. 꽃이 피는 시기 보다 좀 더 앞서 일찍 시비를 하였다면 반복해서 꽃을 피우는 장미 품종들은 이 시기에 꽃을 잘 피우게 될 것입니다.

□ 램블러 장미를 전정해 주세요. 새순이 줄기 어디에서 나오는 지 찾아서 꽃이 피었던 줄기를 새순이 나오는 지점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 1년생 식물은 씨가 뿌려지기 전에 모두 제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에 장미 주위의 땅을 그들이 식민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 6. 이른 가을

□ 늦게 핀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시고 장미가 계속해서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시든 꽃은 정기적으로 따 주세요.

□ 필요하다면, 늦게라도 울지 모를 녹병에 대비해서 진균제를 뿌려주세요 ; 방치해 두면 녹병이 가지를 말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식물 주변의 잎들은 깨끗하게 치워 주세요, 이것이 겨울 내내 진균성 포자를 숨겨줄 수 있습니다.

## 7. 가을 중순부터 늦가을까지

□ 이 시기는 장미가 나묘 상태이건 화분에 심겨진 상태이건 간에 새로운 장미를 심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토양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서 그들이 겨울 내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식물을 심기 전에 유기물을 퍼서 나르면서 토양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 바람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비바람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품종은 짧게 잘라 주세요.

□ 덩굴성 장미와 램블러 장미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가지는 모두 묶어 주세요.

## 8. 겨울

□ 만약 지면이 얼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겨울 내내 지속적으로 장미를 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묘 상태의 장미가 도착했고 땅이 심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일단 가식해 두고 날씨가 좋아 질 때까지 심는 일을 연기하세요.

□ 덩굴성 장미의 새 줄기는 정돈해서 유인하고 묶어주세요.

출처 : Alan Titchmarsh

"How to garden"

번역 ; 황보순 로자리안



## 장미 배식방법(2) - Companion plants

늦봄과 초여름 장미가 꽃을 피우는 시기에 맞춰  
배경이 되어주는 관목 형태의 일년초와 다년생 식물의 다양한 색은  
장미와 혼합 식재 할 때 장미 화단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둥근 형태의 장미 주변에 초화류를 혼합식재할 때는  
청 보라색계의 곧은 줄기를 가진 초화류와 잘 어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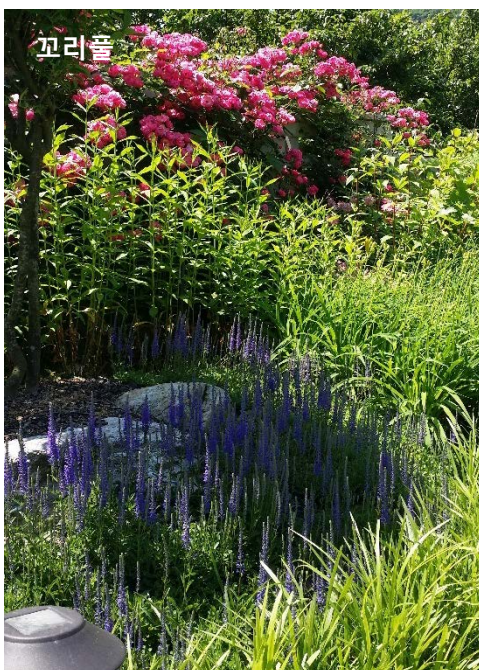
추천하는 초화류는 시베리아 붓꽃, 꼬리풀, 텔피니움  
알리움, 라벤다가 잘 어울리며  
그라운드 카버의 아케밀라,  
라임그린색의 꽃과 흰꽃폭스글로브는 관목장미와 잘 어울립니다.

선이 굵은 식물로는 장미와같이  
비옥한 토양과 거름을 좋아하는  
작약이 장미화단을 아름답게 합니다..

글: 곽은주 로자리안



## Rose Planting & Landscape







## WFRS Regional Convention 및 14th International Heritage Roses Conference 개최, 중국, 베이징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의 2016년도 지역 대회 및 14차 국제 헤리티지 로즈 회의가 5월 18일~24일 중국 베이징 다싱(Daxing) 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은 18세기 중국 장미가 오늘날의 세계적 현대 장미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자부심과 장미는 중국인이 애호하는 10대 화훼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Beautiful Rose, Beautiful Home” 이라는 테마와 “Roses Blossom in Beijing” 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각국의 로자리안과 함께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Albrighton의 ‘David Austin Rose Garden 등 WFRS “Award of Garden Excellence” 수상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 Lyon 2015년 세계대회에서 영국의 슈롭셔주 울버햄튼의 올브라이튼에 위치한 ‘**David Austin Rose Garden**’ 비롯한 유럽의 5개 정원 선정되었습니다. 그외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지역과 미국, 남태평양 지역의 정원도 수상되었습니다.

### Award Winning Gardens – Europe:

- David Austin Rose Garden England
- Roseto di San Giovanni Italy
- Roseninsel Park Germany
- Roseaie at Au Diable Vert Switzerland
- Roserar Amargos Garden Spain







**제 1호** | 2016. 01. 05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